

제목: 윌 킴리카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문화> 제2장

요약번역자: 이한

1 공동체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똑같이 자유주의는 과도한 ‘개인주의’이거나 ‘원자론’이며,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공동체적 관계에 ‘묻혀 들어가 있거나’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situated)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manifest) 방식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혼란 일이다.

2 그 다음 5개의 장에서 나의 기획은 자유주의가 이러한 반론들에 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원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용어는 많은 상이한 장(field)에서 많은 상이한 이론들에 적용되어 왔다. 내가 방어하고 싶은 종류의 자유주의는, 규범적인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상이한 비판자들은 상이한 과녁을 공격하며, 몇몇 논의는 특정한 자유주의 이론가의 분명하게 표명된(articulated) 전제를 겨냥하며, 다른 논의들은 자유주의적 마인드의 정치가와 판사들의 습관과 성향을 겨냥하며, 다른 논의들은 서구 문화에 일반적으로 깔려 있던 더 흐릿한(nebulous) 세계관을 겨냥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이 상이한 측면들은 자주 서로 충돌한다.

3 예를 드려 관용은, 전체 전통을 걸쳐 가장 중요한(cardinal) 자유주의적 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나는 이 덕에 대하여 자유주의 전통의 상이한 수준에서 서로 매우 다른 해석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상의 대화에서 관용은, 가치의 주관성에 대한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이 자주 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판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를 비판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때 ‘리버럴 마인드’라고 자주 이야기된다. 그러나 다른 수준에서 많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그것이 사람들이 숙고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는 상이한 가치들에 관하여 하기 위한 최선의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용을 주장해 왔다. 다른 이들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선호를 비판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히도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함에 있어 자유의 역할에 입각한(predicated on) 것이다. 나는 관용에 대한 이 두 해석을 이 장에서 더 길게 다룰 것이지만 관용에 대한 해석은,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무엇이 자유주의인가에 대하여 일상적 지각과 차이를 보이는 유일한 상황은 아니다.

4 나는 자유주의자들이 이 최근의 반론들에 대하여 무엇을 반박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 특정한 자유주의자가 과거에 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성적 빛을 이야기하자면, 나의 논변은 J.S. 밀에서 롤즈, 드워킨까지의 근대 자유주의 정치 도덕에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5 무엇이 그들의 정치적 도덕인가, 그것은 우리의 이해관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주장으로 시작한다. 그 주장은 받아들일 만한(unobjectionable)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본질적 이해관심은, 좋은 삶을 살고 그 좋은 삶이 담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갖는 데 있다. 그 주장은 꽤나 지극히 평범한(banal)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좋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현재 좋다고 믿는 삶을 사는 것과는 다르다. 즉, 우리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했던, 사소하거나 천박한 목표나 계획을 추구해오며 삶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위대한 소설들의 주제, '신앙에 있어서의 위기'(crisis in faith)다. 그러나 이런 일이 비극적인 주인공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숙고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다(make mistake)는 점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숙고한다. 잘못 예측(predication) 한다는 의미에서나, 불확실성을 잘못 계산한다는 의미에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조차 우리는 숙고하며, 사태가 계획 한대로 진행되었을 때조차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후회할 지 모른다. 주어진 기획에서 성공의 불가피성은 내가 그것을 추구할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는다. (비록 물론 실패의 불가피성은 그 기획을 피할 좋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푸시핀 선수가 되는 것에 눈부시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푸시핀이 시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내가 그 기획에 착수한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

6 숙고는 그렇다면 어떤 행동 방침(course of action)이 의문시해보지 않고 견지하는 특정한 가치를 극대화하는지를 묻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을 던지고(question) 걱정한다.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기획과 헌신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질문(question)의 과정은, 위대한 문학의 소재(stuff)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어린이의 요정 이야기에서부터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소설(epics)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삶을 가치 있게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만 이치에 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특정 시점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된 관심은, 우리의 본질적 이해관심이 좋은 삶을 사는 데 있지, 단순히 우리가 현재 좋다고 믿는 삶을 사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가정(assumption) 하에서만 이치에 닿는다. 우리는 그냥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판단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때때로 고뇌한다. 우리가 거짓인 신념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Raz 1982 pp.100-2)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본질적 이해관심은,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현재 견지하고 공유하는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의 숙고는 현재의 목적과 기획의 성취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숙고는 그 목적과 기획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며, 우리는 우리의 현재 판단과 과거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7 나는 내가 이 주장이 반대할 수 없는 것이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우리들의 합리적인 삶의 계획을 형성하고 수정할 능력에 우리의 '최고차적인 이해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맑스는 자유롭게 창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그러한 최고차적 이해관심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체는 능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검토하고 변경하게끔 해주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심은, 좋은 삶을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해관심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8 우리가 가치에 관한 우리의 신념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으나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렀다고 믿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와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 따라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삶도 그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가치에 따라 외부로부터 이끌어져서는 더어나가지 않는다. 나의 삶은 가치에 대한 나의 신념에 따라 내부로부터 내가 살아갈 대만 더 나아진다. 신에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는 활동일지도 모르나,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행위가 가치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그것이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당신은 누군가를 강제하여 교회에 가게끔 하여 올바른 물리적 움직임을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더 낮게 만들 수는 없다. 설사 그 강제된 사람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신념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은 그녀의 삶을 더 낮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은 내부로부터 살았을 때에만(그리고 내부로부터만 가치가 추구될 때에만)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9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삶을 사는 데 대한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관심의 두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부로부터,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신념들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을 더니족, 우리의 문화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사례와 논변에 비추어 그것들을 자유롭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그러므로,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념에 따라, 비정통적인 종교나 성관습 등등을 행한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처벌받음 없이 그들의 삶의 사는 데 필요한 자원과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시민적 자유와 인격적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좋은 삶에 대한 상이한 견해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견해들을 지성적으로 검토하고 재검토하는 능력을 획득하기 좋은(conducive) 문화적 조건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한 동등하게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관심이 나오는 것이다. 이 자유들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즉, 우리의 집단적인 문화적 유산의 상이한 측면들을 탐구함으로써-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10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관심에 대한 이 설명이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드워킨에 따르면 우리는 추상적 평등주의의 토대(plateau)로부터 작업하는 정치 이론에 우리의 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 그 토대에 따르면 '공동체와 구성원의 이해관심은 중요하며, 평등하게 중요하다'(Dworkin, 1983a p.24) 그러므로 각 이론들은, 사람들의 이해관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을 가장 포괄적으로 인식된 형태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이해관심들이 평등하게 중요하다는 가정으로부터 따라나오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이해관심은 이 신념들을 올바르게 얻어 그 올바른 신념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사람들을 평등한 존재로, 평등한 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이 신념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행위하는 데 필요한 자유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요구조건은, 현대 자유주의 정의론의 기초를 형성한다.

11 그것이 가장 간략한 개요(barest outline)에서의 현대 자유주의의 정치적 도덕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주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추상적인 개인주의와 선에 대한 회의를 포함(involve)한다는 것이 수용된 지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

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그러한 가정 중 어느 것도 밀이나 롤즈, 드워킨의 이론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이 받아들여진 지혜가, 텍스트적 근거도 전혀 없이 얼마나 자주 전파되는지는 놀라울 정도다. 나는 두 개의 사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사례는 자유주의에 대한 Jagger의 논의에서 나온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용문) 자유주의의 가정은, 개별 인간이 본질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이며(solitary) 다른 개인의 필요나 이해관심과 상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든, 분리된 필요와 이해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자유주의 이론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정치철학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여기는 것을 만들어낸다. 외딴 개인들이 시민 사회에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며, 그들이 그렇게 합의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Jagger p.40) (인용문 끝)

자유주의자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개인들이 시민적 결사에서 갖는 이해관심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이해관심을 달성하는 결사의 정당성 있는 권력을 제한하는’ 사회계약 이론으로 답한다고 한다. (ibid) 그러나 그녀는 ‘본질적인 인간의 성격이 어떠한 특정한 사회 맥락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주어진다’는 이 가정은 ‘개인의 욕구와 이해관심이 그들이 자라난 사회 맥락에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험적 연구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disproved)’고 말한다. 이 연구들은 전 사회 체계로서 인간 본성을 여기는 ‘추상적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연구를 받아들인다면 ‘개인들이 일정한 고정된 이해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는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당화의 타당성을 기각(invalidate-무효화하다, 틀렸음이 입증되다)한다’(Jagger pp.42-3) 우리가 개인들의 목표와 이해관심이 다양한 사회적 과정과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안과 밖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심은 틀린 생각이다(misconceived). 이 상호작용 안이나 바깥이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의 이해관심과 목표가 사회에서의 그들의 삶에 선재한다는 허위로 입증된 논제를 전제로 해서만 이치에 닿는다.

12 이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충분히 흔한 견해다. (5장에서 등장하는 유사한 반론을 보라) 그러나 Jagger의 비판은, 자유주의자들이 실제로 말한 것으로부터 많은 쓸데없는(gratuitous) 참조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귀속되는 두 가지 상이한 주장이 있는 셈이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획과 헌신에 의문을 던지고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개인들이,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바깥으로 나간다고, 즉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성격 형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종속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번째 주장은, 첫번째 주장에 대해 완전히 g 쓸데없는 추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Jagger는 아무런 텍스트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기획에 의문을 던지지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던지기 위해 사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며, 우리가 그런 의문을 던지면서 여하한 사회적 조건화를 초월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된 목적에 질문을 던질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덕적으로 중요하기 위해서 사회 바깥에 존재하거나 사회에 선재할 필요도 없다. 추상적 개인주의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은 자유주의 정치의 도덕

적 논변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13 이와는 반대로 만일 자유주의자가 자아에 대한 그러한 터무니없는 견해를 가졌다면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위한 그들의 논변을 오히려 가릴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밀이 벤덤을 비판한 바로 그 방식이었다. 밀은 벤덤의 이상을 각자 그의 분리된 이해관심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자 불가피한 것이 이상으로 서로 얽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특징지었다. (Mill 1962 p.70) 그러나 밀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종류의 정치 이론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리의 성격을 수정(modifies)하며, 우리는 이것이 일어나는 방식을, 좋은 삶을 산다는 우리의 본질적인 이해관심에 따라서 이 과정에 질문을 던지고 규제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벤덤은 외부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우리의 성격 형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없이는 이 규제는 멈칫거리고(halting), 불완전한 것일 수 있다. (Mill 1962, p.71)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현재의 ‘세속적인(worldly) 이해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착과 욕구’가 형성되고 우리의 성격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전하는 방식에도 있다. 이 두번째 관심이 없으면, 신체와 재산에 대한 권리만을 방어할 수 있을 뿐, 시민적 자유, 자유로운 표현의 공적 영역, 자유주의적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관심을 방어할 수는 없게 된다.

14 우리의 이해관심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이 관심과, 개인의 선택과 시민의 자유에 대한 방어와 그것의 관련성은 롤즈에게도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의 도덕적 인간관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주장과 관련된다.(involve)

(인용문 시작)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근본적인 이해관심을 포함하는 그들의 다른 모든 이해관심이 어떻게 사회제도에 의해서 형성되고 규제되는지에 대하여 최고차적인 이해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들이 특정한 시점에 가질 수도 있는 어떤 특정한 근본적인 이해관심의 복합체의 추구에 불가피하게 구속되어 있거나 그것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그러한 이해관심을 증진할 권리를(그 이해관심들이 허용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보다는, 자유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들의 최종 목적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최종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이 목적들에 대한 원래의 충성과 계속되는 헌신(devotion)은 자유로운 조건 하에서 형성되고 확인되어야 한다.(Rawls 1974, p.641) (인용문 끝)

우리의 목적이 사회에서 ‘형성되고 확인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회는 신체와 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적 자유의 권리 역시 보장한다.

15 밀도 롤즈도, 우리의 이해관심이 전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근거에서 자유주의적 자유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밀은 그러한 ‘추상적 개인주의적인 전제’로부터는 자유주의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일 사람들의 이해관심을 전 사회적인 것으로 사회에 앞서 고정된 것으로 다루고, 사회를 그것에 대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다룬다면, 양심의 자

유, 표현의 자유, 교육과 자기교육(self-education),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심 중 어느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16 수용된 지혜의 오해(misinterpretation)의 두번째 사례는 선에 대한 회의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Unger와 Jagggar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선에 대한 상이한 관념의 합리적인 옹호가능성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우리의 목표를 합리적인 비판이나 정당화를 할 수 없는 궁극적으로 자의적인 것으로 다룬다. Unger는 그러한 도덕 회의주의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성이 없다는 자유주의적 신념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Unger pp.66-7) (Jagggar p.194도 동지) 우리의 목적이 자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유주의 심리학에서 이성이 하는 역할은 순전히 도구적이다-이성은 우리의 주어진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발견하는 것을 도울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설리번(Sullivan)은 ‘도구주의, 그리고 그것의 필연적인 귀결(corollary), 가치의 주관적이고 궁극적으로 자의적인 성격은, 자유주의적 사고에서 가장 심층적인 주제(motif)다’라고 주장한다. (Sullivan p.39)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자유주의적 심리학에서 이성의 도덕적 불능(moral impotence)를 인정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에 헌신하는 것이다.(Unger p.52) 그리고 상이한 목적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 (Jagggar p.174; Sullivan pp.19-20, 38-40)

17 그런데, 내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주의의 ‘주관주의적’ 견해는 ‘리버럴인드’ (liberal minded) 같은 일부 일상 용어와 공명한다. (have resonances in) 그러나 Jagggar와 Unger는 자유를 위한 지배적인 철학적 논변에서 이 견해를 위치지우는데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완전한 오해(misinterpretation)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사실, Jagggar와 Unger에 의해 자유주의에 귀속된 그 입장에 대한 거부에 정확히도 기대고 있는 것이다. <자유론>과 <공리주의>에서의 밀의 자유를 위한 논변을 고려해보라. 어떤 기획은 다른 이들보다 더 가치 있으며, 자유는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바로 요구되는 그것이다.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질문을 던지고 재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 말이다. (Mill 1972 pp.114-31; Hobhouse 1964 pp.59-60; Rosenblum pp.134-5) 이것은 우리가 자유를 욕구하는 주된 이유들이며, 우리는 선에 대하여 배우기를 희망한다. 밀은 우리의 욕구는 그것이 헛된 희망(vain hope)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선을 사회적 상호작용에 우선하여 미리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선을 알게 되어, 노직의 문구를 사용하자면 ‘최선의 것bestness’을 파악할수 있다는 정확히도 그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선에 관하여 배울 수 없다면 밀의 자유를 위한 논변의 결정적인 전제가 무너진다. 동일한 이치가 롤즈, 드워킨, 노직, Lomasky, 그리고 라즈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은 모두 우리 삶에서의 목표가 고정되었다는 이유나, 그것들이 자의적이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틀릴 수 있으며 우리가 그 목표들을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도덕적 독립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18 이런 종류의 자유주의는 수용된 지혜에 기초한 것일 수 없다. 만일 추상적인 개인주의와 도덕 회의주의가 근본적인 전제라면, 사람들이 가치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수정하도록 허용

할 아무런 이유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들의 헌신에 질문을 던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부인당함으로써 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이다.

19 자유주의는 그저 우리의 현재 욕구에 따라 행위할 자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사소한 자유가 아니다. 삶이 내부로부터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자유만으로도, 강제적인 온정적 간섭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금지를 정당화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내 삶을 살아줄 수는 없다. 그러나 내부로부터 자신의 삶을 사람들 중에서 서도, 사회화, 언론,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체계적인 통제를 통하여 특정한 목적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되어 온 사람들이 있으며, 다른 삶 중 어떠한 삶을 시도하는 것도 저지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주의자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0 그것은 벤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벤덤이 신경쓴 것은 전이론적으로 주어진 현재 존재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자유가 전부였다. 그러나 밀에게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갖게 되는 조건이 중요하였다. 그들이 받는 교육이나 문화적 사회화가 그들의 목적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젖히느냐 아니면 닫아버리느냐가 중요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근거하여 행위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 선택을 올바르게 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우리의 목적을 검토할 자유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내부로부터 추구하지 않는다면 가치 없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내부로부터 삶을 살 자유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자의적이지도, 고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가정 위에서만 이해 가능한 고유한 관심이다. 즉,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그들에게 귀속되곤 하는 가정들을 거부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관심이다. <끝>